

■ 홍보 ·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이모저모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5 축산물 경진대회 및 전시회(KAPF2005, Korea Animal Products Contest & Fair 2005)'가 서울 삼성동 COEX 인도양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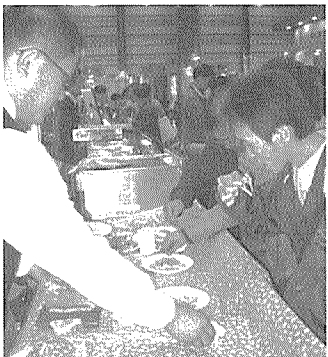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는 국내 우수축산물이 한 곳에 모여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대회로써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 유통인들이 함께 모여 축산물축제 한마당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로는 각 축종별로 축산물 브랜드를 홍보, 축산물 전시 및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미래 축산산업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의 필요성 고취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참여업체

이번 대회는 국내 107개(246부스) 우수 브랜드 축산물이 참여했다. 양계관련 참여 업체와 브랜드로는 (주)마니커(마니커), (주)조인(강남농장), 충북바이오축산영농(청풍명계), 푸른초원농원(황토한약재래토종닭), 연산식품(주)(연산오골계), 흥성서부육계영농조합법인(흥주기력닭), (주)미림(황솔토종닭고기) 농협(목우촌) 등이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계란·닭고기 브랜드를 선보였다.



▲ (주)조인에서 계란홍보에 적극나섰다



▲ 닭고기 시식회(청풍명계, 흥주기력닭 등)

대한양계협회 양계산물 홍보

본회에서는 달걀·닭고기 홍보를 위해 포장용기 전시, 홍보방송 자료 판넬 전시를 하였으며, 홍보방송 상영과 요리책자 배포 등을 통해 올바른 계란·닭고기정보와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특히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발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I(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양계산물은 유통될 수 없으며 안전한 양계산물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알리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양계정보를 홍보하였다.



▲ 대한양계협회 부스에서는 양계산물을 홍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이벤트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다각화 된 마케팅이 눈이 띄었다. 특히 참관객을 대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던지기, 즉석퀴즈 등을 통해 자사제품을 상품으로 제공하여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즉석 동물인형 퍼포먼스, 칩흙공예, 바디페인팅 행사가 마련되어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브랜드 전시회 최초로 2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접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 참관객들이 공던지기(좌)와 바디페인팅(우)을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3일간 펼쳐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브랜드를 홍보하며 국내축산물의 비전을 제시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양계관련 부스가 타 축종에 비해 비중이 작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